

# “행간 가득 자비 싣고 소중한 인연 찾아가요”

소식지 ‘소쩍새마을’

창간 10돌 주역들

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장애인 시설인 원주 소쩍새마을 식구 박태근(19) 군. 어릴 때 소쩍새마을에 들어온 지체장애자인 박 군은 올해 초 원주농고를 졸업, 영동대학 호텔조리과에 입학원서를 냈다. 하지만 아무도 박 군이 대학에 진학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등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 후원회원 10만명 ... 매달 6만부

그러나 <소쩍새마을>은 박 군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자신을 입 모찌 부부라고 밝힌 사람들은 박 군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박 군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됐다”며 “결연을 맺어 졸업 때까지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쩍새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인 <소쩍새마을>이 맺어준 인연 덕분에 한 장애인의 꿈이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됐다.

한 가지 일에 지치지 않고 10년을 매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보수마저 적다면 더욱 그렇다. 장애인 범우들의 소식을 싣고 전국 후원자들의 때문 알까지 찾아가는 신문, 월간 <소쩍새마을> <신문대판 8면>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믿을직한 일꾼들이다.

후원회원이 10만여 명에 달하는 <소쩍새마을>의 정식 기자는 홍석원(35) · 정수근(29) 씨 뿐. 그러나 단 둘만이 매달 6만부의 신문을 찍는 것은 아니다. 현각 스님(소쩍새마을 원장을 비롯 김용진(총무과장 · 34), 김연경(홍보팀 · 31) 씨 등 10여 명의 승가원 사무국 직원들은 오늘의 <소쩍새마을>을 일군 주역들이다.

이들은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소쩍새마을> 편집회의에 참석,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총무팀 방수정(25) 씨는 “신문을 만들어 놓고 목자의 위치에서 읽다보면 마을 식구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난다”며 “조금 더 좋은 지면을 만드는 일이 곧 그들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에 피곤함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한다.

신문이 인쇄돼 세상에 나오면 승가원 식구들은 밤늦도록 발송 작업을 돕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찰과 복지관을 다니며 신문 홍보도 한다. 양영숙(회계팀 · 37) 대리는 “내 조그만 노력이 소쩍새

마을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발송 작업도 즐겁다”며 “승가원 직원들은 모든 장애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발원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동안 <소쩍새마을> 신문 발간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홍석원 기자는 첫 활동을 시작하던 98년 무렵을 이렇게 회상했다. “취재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대뜸 ‘거기 도둑놈 집단 아니요?’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일력 스님의 행령 사건이 아직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소쩍새마을은 95년 7월 ‘아빠 스님’으로 알려진 일력 스님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중 분해될 위기를 맞았다. 후원자가 끊기고 자원봉사자가 떠나면서 이듬해 2월까지 신문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중앙승가대가 소쩍새마을을 인수하고 승가원 간판을 달았다. 그렇지만 운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여기에 외환 위기가 겹치면서 소쩍새마을의 어려움은 커져만 갔다.

## 불교사회복지 기사 발굴 주력

이 때 흥 기사를 포함한 승가원 직원들이 소쩍새마을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여기서 무너지면 소쩍새마을은 끝장”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국회의원, 장관 등 사회 저명인사의 원고를 받아 소쩍새마을 이미지를 개선한 것은 기자들의 몫이었다. 승가원 직원들은 신문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밤늦도록 작업을 거듭기도 했다.

이런 남모름 노력들이 모여 지금 <소쩍새마을>은 6만부의 부수를 자랑하는 알짜배기 소식지로 성장해 행간마다 자비를 가득 싣어 나온다. 후원자들도 다시 10만여 명으로 늘어나 200여 소쩍새마을 식구들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게 된 것이다.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불교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적극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박재환 기자 jwpark@buddhapia.com



◇<소쩍새마을>의 편집진인 정수근 · 홍석원(오른쪽에서 두번째 · 세번째) 기자와 승가원 직원들이 10주년 기념회를 모여 활짝 웃고 있다.

## 달동끼사이 정문회백

### 만평 · 만화 ‘뜰이네 가족’ 10년째 연재... 원고료는 전액 ‘소쩍새마을’에 기부



◇81년 광덕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정문 씨는 <소쩍새마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편집진의 일원으로서 소식지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더 많은 후원자가 생겨서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환하게 웃게 되길 바랍니다.” <소쩍새마을> 편집진의 한 사람이자 후원자 중에 인기 만화가가 있다. ‘심술똥’, ‘월인 캠타우’로 유명한 이정문(62) 화백이 바로 그 주인공.

“81년 불광사 범주 광덕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 만화에 심취하게 됐다”는 이 화백은 93년 한국만화문화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전액 기부하면서 소쩍새마을과 인연을 맺게 됐다. “94년 1월 소쩍새마을을 방문했을 때 장애자들이 불편한 모습으로 음식에 앉아 라면을 먹는 처량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이 화백은 10년 동안 빠짐없이 <소쩍새마을> 신문에 만평과 ‘뜰이네 가족’이란 만화를 연재하고 원고료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이 화백과 함께 심우회원인 박수동 · 고우영 · 신문사 화백도 10년째 소쩍새마을을 후원하고 있다.

TrekSta®

# 발(足)에도 자비를 베풀소서!

절에 가시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구요?  
이제 당신의 발에도 편안함을 주세요.  
더 편안한 TrekSta 성불화 자비로 II

어머니건강하게 오래오래하세요

## 더편안해진성불화 자비로 II

여/230~255mm  
남/250~280mm

Only One Number One  
**트렉스타**  
www.treksta.co.kr

### 자비로 II 제품특징

- 천연가족뉴벽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나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신고بت기에편한슬립온(Slip-On)스타일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깔창(인솔)사용
- 특수방수처리(생활방수기능)
- 가볍고편안해서여성분자및스님에게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 사: 02-320-0600 유통영업팀: 02-320-0795 동서울지점: 02-320-0624  
남서울지점: 02-320-0786 대전지점: 042-487-9601 호남지점: 062-511-8377  
영남지점: 051-309-7110 대구지점: 053-382-8163